

이 땅을 감로수로 적셔주던 大刹

이 땅에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는가. 오색의 봉축 연등이 온 산하를 물들이더니, 다시 손님이 청사초롱이 길목마다 아른거린다. 아카시아 꽃잎이 분분히 흩날리는 5월의 남한강. 휘파람새 울음소리에 청보리 줄기도 목을 빼는데, 문막고 아래에서는 목아(木杓)의 손도끼가 서른 두 마리의 목아에게 여의주 대신 축구공을 입에 물리기 위해 잔손질이 한창이다. 천하를 회통하는 것은 용들의 뿔이겠지만 구판을 벌리는 것은 범부들의 뿔일 것이다. 어디서 동동 북소리가 울릴 것인가.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 엉뚱한 것들 이 엄청난 전치의 공적으로 모두가 도깨비 걸음으로 저만치 물러갈 일이다.



세상의 한 편은 뜨겁고, 세상의 한 편은 얼릴 때, 그래서 지경(智境)을 켜 손가락에 딱이 풀리고, 온 몸에 신열이 느껴질 때, 타는 목마름으로 조용히 다가가고 싶은 절이 원주 땅 법천사지(法泉寺址)다. 진리(眞)의 새알(新)인 법천사. 법의 수맥은 이미 끊긴지 오래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면 축축한 법의 뿌리가 느껴진다. 한방울의 샘물이 바다가 되는 큰 이치를 여기 와서 보면 알 것이다. 충주 목, 목계 나무, 봉명산 골짜기를 흘러내린 남한강 지류들이 다시 섬강과 몸을 섞고, 여주 들을 적시며, 유장하게 천년의 아리수(阿利水)가 되어 반도의 젖줄로 굽어친다. 법천사 문패를 떼었다고 법의 샘물이 마르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이 나라 불자들의 불심이 어렸을때 그저 강물이 아니라 반도의 감정을 풀어주는 감로수임을 강둑 길에 밝히는 민들레, 영경귀, 옥부쟁이들은 알아차리리라.

인연을 맺었다. 그것 역시 여기서 출가하고 여기서 열반한 지광국사가 물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광국사의 어릴적 이름은 '수몽(水夢)'이고, 관음대사가 내린 법호 또한 '해린(海麟)'이었다. 지광의 어머니는 하천과 우물이 흘러 넘치는 꿈을 꾸고

평사지를 찾아서
장지연의
잊혀진가람 탐험

원주 법천사터



지광국사때 중흥... 고려불교 중심사찰 현묘탑·비 11세기 불교미술 걸작품

지광을 일태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수몽이라 지었던 것이다. 지광국사는 1067년 10월 23일 이곳 법천사에서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저녁에 적멸의 길로 들어섰다. 일종의 눈앞에 둔 국사가 '바깥 날씨가 어떤가' 물으니, 제자들이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답했다. 그러자 지광국사는 곧 편안히 오른쪽으로 누워 열반에 들었다는 것이다. 죽어서라도 한방울의 샘물이 되고자 했던 지광국사의 원력이야말로 이 나라 불교 정신의 법천(法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광국사의 일대기를 아로새긴 현묘탑비는 지광국사 생애와 공덕만큼이나 아름다운 문장과 도타운 장식들이 고색창연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두 마리의 용이 측면을 에워싼 비신은 곱절마다 임금 양(王)자를 새긴 돌 거북이 용의 머리로 분신한 채 남한강 물줄기를 굽어보고 있다. 돌거북은 이렇

게 축축한 날은 또다시 주인을 등에 업고 어디로 떠나려는지 물갈퀴 세운 앞발을 쳐들고 미적미적 노저를 채비를 하고 있다. 원주 일원에는 무려 100여 개의 절터들이 널려 있다. 그 절터들 역시 이곳 법천사를 비롯한 거문·흥법 3대 폐사지와 함께 이 땅을 기를지게 하고자 했던 법의 샘터를 이었을 것이다. 나말여초에 이 곳 섬강 일대에 집중적으로 대형 가람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은 이 곳 중원이 삼한이 각축을



◁법천사터는 지금 원주시에 의해 한창 발굴중이다.

벌이던 역사의 무대였고, 반도의 중심인 한강의 발원지이며, 원종·지광·원공·진공 같은 걸출한 고승 대덕들의 발길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무수한 법의 샘구멍이 풀렸던 이 곳 일대의 대형 사지들이 하나같이 폐허가 된 것은 이 땅위에 살았던 민초들의 삶이 그만큼 격렬했고, 법을 지키고 보듬어야 할 위장자들의 안목이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창건된 법천사는 지광국사에 이르러 당대 최고의 대사로 발전했으며, 자자고개 너머에 있는 거문사와 함께 고려불교의 중심 사찰로 자리 매김하였다. 법천사지보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는 마을의 내력을 말해주는 수령 수백년이라는 느티나무가 서 있다. 그 느티나무 턱 밑에는 서원이라는 안내비가 마을의 또 다른 내력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 초기에 유방선이 이곳에 머물며 유교의 강화를 하였는데, 한명회, 강요문, 서거정, 권람 등이 이곳에서 공부하였다고 한다. 법천사는 그 후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감히 중창할 인연을 얻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법천사지가 어느 폐사지와 다르게 마을을 아리게 하는 것은 폐사지치고는 너무도 웅

△거문·흥법사터와 함께 여주 3대 폐사지인 법천사터 전경. 당간지주옆에 개안집이 들어서 있다.

▷폐허난 조각승세를 자랑하는 지광국사 현묘탑비, 부도는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있다. 법천사터에서 나란히 세워질 남은 연재일기.



◁여기저기 날부러져 있는 석물들이 사찰의 예전 영화를 말해주는 듯 하다.

18년 후인 선종2년(1085)에 조성된 부도는 현묘탑이라 불리는 것으로, 부도비 못지않게 정교하고 아름답다. 이 부도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오오사카까지 밀반출되었다가 반환된 것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며 파손된 것을 1975년에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도의 변천사가 한국불교 미술의 변천사라면 부도의 수난사는 곧 우리 민족의 수난사이기도 하다.

조선초 한명회등 공부, 임란중 전소 원주시 3대 폐사지 정비·발굴 한창

저하게 폐허가 된 오늘의 운명 때문일 것이다. 당간지주와 마을의 뒷쪽에 자리한 것을 보면 맨 처음 절의 출입구는 그곳이었던 같은데, 지금은 길도 끊기고 내뼘도 매꾸어졌으니 완전히 마을의 앞뒤가 바뀌고 마을의 역사도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1천여 스님들이 거주하던 전각들이 있던 자리는 비닐하우스나 한옥을, 조립식 건물들이 대신 들어차 사지에 있을 부조물들은 민가의 절구통이나 물풍으로 변신해 있다. 옛날에는

법천사에서 퍼져나간 향나무가 일대에 가득했다는데, 지금은 아산에도 잡목들뿐, 오직 향기로운 것은 그래도 법천사지를 떠나지 못하는 용머리, 광배, 연화문 대석,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석물들이 하나 둘 지광국사 현묘탑비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지광국사 현묘탑비와 짝을 이루고 바로 그 곁에 대정스레 서 있어야 할 부도(국보 제101호)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옮겨져 있다. 부도비와 함께 국사가 밀려난

법천사는 지금 원주시에 의해 복원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원주시는 중원문화권 정비사업의 하나로 법천사지·흥법사지·거문사지 등 중원지역 3대 폐사지에 대한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고 훼손된 불교 유적을 정비해 고려불교의 원형을 회복하고 당대 민중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지광, 원공, 진공 등 세 스님의 업적과 위상을 재조명한다는 방침이다. 법천사지에는 모두 37억9천6백만원의 투입해 사지정비를 시작하였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온 학예사들이 가랑비에도 아랑곳 않고 우선 발굴작업 중인 사지에 금줄을 띄우고 돌맹이 하나라도 쓸고 닦기에 여념이 없다. 이제 겨우 시굴작업 중인 사역은 마을의 초입에 불과하니 농가로 둘러친 본격적인 사지의 발굴작업은 언제까지 진행될지 막막해 보이긴 한다. <시인·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정산리 거문사터면

부처님 기쁘기 중민만 우리절

2002관 월드컵기념범종 탁종법요식

"2002관 월드컵기념범종 탁종법회에 우리 함께 참여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특별히 주조된 2002관 크기의 세계 유일의 월드컵기념범종 탁종법회를 봉행합니다.

월드컵 범종의 노래

정음이게 울러라 온누리에 퍼져가라
너와나 우리모두 이나에게 미어라
시기와 질투 번복 온갖 갈등 놓여두고
이세상 모든 생명 기쁘있게 미어라
지혜이 원력이이 지비어 화합이이
이 중소리 들리는 곳 원음이게 미어라
법계의 모든 중생 우리절 도량에서
미래게 다이도록 함께 성불이어라

주지 동봉암장

범종의 공덕

번거게 세우고, 시냇가 지어내고, 깨달음의 불기를 유입시키고, 지옥의 고통을 타내고, 삼계를 벗어나고, 팔만대천에 원대한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중생들이 지복과 보살의식을 행하고, 유망하게 이들을 밝히고, 삼의외의 고통을 타내고, 인연에 맺어지고, 국왕에게 태어나고, 삼보를 받는 일이 없고, 삼덕이 끊어지고, 삼덕이 끊어지고, 모든 부처님의 기쁨을 차지하고, 분신으로 온누리에 무후하고, 삼보를 타내고, 이마의 불의 가치를 잃고, 영혼의 공적이 이루어지고, 세운 공적이 허락되고, 뛰어난 복덕으로 정답지고, 삼행의 집어먹지 못하고, 적의농성지 끊어지고, 불교의 이치서 못하고, 관행적 구설이 허물어지고, 백여 차례를 고통 짓고, 이불이 끊고, 삼행이 끊고, 부상이 끊고, 이불을 떠날려고, 견뎌내고, 정수하고..... 등 등.

2002년 월드컵법회는 104가지 공덕이 스며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탁종법회

장소: 관지암 우리절 (www.udjeot.com)
일시: 2002년 6월 19일 오전 10:00
문의: (033) 763-4674-5
특별법회: 법안영사 요청은 스님

